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 의장협의회가 19일 전주 그랜드힐스호텔에서 제239차 시·도 대표회의를 열었다. 사진은 참석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화이팅을 외치고 있는 모습.

“무주에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 전주서 시·도 대표회의 5급 전문위원 관리수당 지급 위한 건의문도 채택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 의장협의회가 무주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과 5급 전문위원 관리수당 지급 등을 촉구했다. 19일 전주 그랜드힐스호텔에서 열린 제239차 시·도 대표회의에서다.

전주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대표회의는 조영훈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등 15명의 각 지역 대표가 참석했다. 전북지역에서는 강동화 전주시의회 의장이 전북시·군의회 의장협의회를 대표해 참석했고, 신원식 전북도 정부부처시와 송자용 도의회 의장, 김윤덕 국회의원, 김승수 전주시장 등이 자리를 빛냈다.

조 회장은 “품격 높은 문화도시 전주에서 대표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위드 코로나와 함께 할 새로운 환경과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조직개편 정치 환경의 변화 등 심각한 현안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강 의장은 “국가관공 거점도시를 비롯한 3대 국가 거점도시인 전주에서 전국의 의회를 대표하는 행사를 가지게 된 것을 66만 시민과 함께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회의를 통해 변화하는 정치 환경과 지방 의회 역할 확대 및 강화에 더욱 힘을 모아 나가자”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회의에서 의회 인사권 독립 등 공동 관심사와 의정 발전에 대한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전북 현안 가운데 하나인 무주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을 위한 건의문을 채택하고, 정부를 비롯한 관계 기관에 촉구하기로 했다.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는 전 세계에서 입학생을 모집해 태권도의 양적 질적 성장을 위한 수준 높고 전문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 태권도의 보급과 정신을 함양하는 전인적 리더 양성의 요람 역할과 21세기 태권도의 국가 전략 상품화

및 국제 스포츠계에서의 위상 확대, 수련인 증가 등을 통한 우리 문화의 세계적 진출, 중국의 신 동북공정에 대한 대응 역할도 기대된다.

무주군은 이런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을 위해 대대적 서명운동을 전개했고, 전북시·군의회 의장협의회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건의문을 채택하는 등 적극 지원에 나서고 있다.

회의에서는 5급 전문위원 관리수당 지급을 위한 건의문도 채택했다. 지금까지 의회사무처 전문위원은 지자체 5급 과장과 동일한 직급임에도 관리수당을 받지 못해 형평성 논란과 근무 기피에 따른 전문인력 확보 등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행사에서는 평소 투철한 봉사 정신과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친 7명의 의원들이 지방의정봉사를 수상했다.

수상자는 전주시의회 이미숙 부의장과 익산시의회 유재구 의장, 남원시의회 양희재 의장, 김제시의회 김영애 의장, 무주군의회 박찬주 의장, 장수군의회 장정복 부의장, 임실군의회 진남근 의장 등이다. 또 전주시의회 이강민, 김경미 주무관은 유공공무원 표창을 받았다. /유호상 기자

SH 장기전세주택 5채 중 1채 임대보증금 법적 상한선까지 인상

서울주택도시공사(SH) 장기전세주택 5채 중 1채의 임대보증금이 법적 상한선인 5%까지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이 SH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8~2020년) 장기전세주택 갱신계약은 총 2843건으로 나타났다. 법정 최고 인상률인 5%까지 오른 경우는 498건으로 집계됐다.



2018년부터 작년(2020년)까지 계약 갱신 과정에서 4%이상의 임대료를 올린 경우는 총 1,189건으로 전체 계약

의 42%가량을 차지하고 있었다.

특히, 코로나19가 시작된 작년의 경우, 전체 992건의 갱신계약 중 123건(12%)이 4%이상의 인상을 보였다.

반면 11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모든 유형의 임대주택 임대료를 올해부터 2년간 동결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한병도 의원은 “지금도 그 어느때보다 코로나19와 집값 상승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내몰린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생각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

“혁신으로 상생건설, 비전으로 희망건설”

우리 모두와 함께 상생하고 모두의 희망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회장 윤영명

“대한건설협회 전라북도회 제27대 회장단 및 제6대 대표회원”

회장	윤영명	총리위원	국종훈	운영위원	김신길	대표위원	이동규	대표위원	김지현	대표위원	김형주	대표위원	유성희	대표위원	진동선
직접회장	정대섭	운영위원	기호성	운영위원	김영민	대표위원	이유규	대표위원	고원석	대표위원	남옥이	대표위원	이기열	대표위원	최경호
부회장	박규환	운영위원	김만영	운영위원	김영숙	대표위원	이재선	대표위원	권상민	대표위원	두현아	대표위원	이민규	대표위원	최은호
부회장	양성기	운영위원	김성민	운영위원	김영태	대표위원	임재훈	대표위원	김봉순	대표위원	박형연	대표위원	이성민	대표위원	최종환
부회장	박종원	운영위원	김영진	운영위원	김재호	대표위원	장기현	대표위원	김민수	대표위원	박해경	대표위원	이우재	대표위원	최태웅
감사	소재철	운영위원	나윤관	운영위원	김영진	대표위원	김영준	대표위원	김민수	대표위원	박해경	대표위원	이정규	대표위원	최태웅
인사위원	이호석	운영위원	김영진	운영위원	김영진	대표위원	김영준	대표위원	김영진	대표위원	박해경	대표위원	이정규	대표위원	최태웅
인사위원	김성진	운영위원	박영식	운영위원	최영석	대표위원	김영준	대표위원	김성진	대표위원	최영석	대표위원	이정규	대표위원	최태웅
인사위원	이승원	운영위원	최영석	운영위원	최영석	대표위원	김영준	대표위원	김성진	대표위원	최영석	대표위원	이정규	대표위원	최태웅
인사위원	김승희	운영위원	이영희	운영위원	송영석	대표위원	최길영	대표위원	김영우	대표위원	송재철	대표위원	이형우	대표위원	한지훈
인사위원	이정기	운영위원	이영희	운영위원	안영환	대표위원	제이석	대표위원	김종우	대표위원	신연환	대표위원	전주영	대표위원	황수준
인사위원	김승수	운영위원	전도모	운영위원	전도모	대표위원	최도성	대표위원	김철민	대표위원	유득범	대표위원	조희근	대표위원	황도영
인사위원	이동근	운영위원	최선선	운영위원	유선환	대표위원	후태성	대표위원	김철민	대표위원	유득범	대표위원	조희광	대표위원	황희정
인사위원	조병두	운영위원	최선선	운영위원	유선환	대표위원	후태성	대표위원	김철민	대표위원	유득범	대표위원	조희광	대표위원	황희정

“벼 병충해 ‘시름’… 재해대책법 개정 절실”

“전북지역, 재해지역으로 선포돼야”… 도의회 최영일 부의장, 농식품부 앞 1인 시위

수확기를 앞둔 전북지역 벼농사가 도열병을 비롯한 병충해로 시름이 큰 가운데, 빠르고 정확한 피해 확인을 거쳐 정부가 재난지역으로 선포해야 한다는 1인 시위가 진행됐다.

전북도의회 최영일(순창·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오전 7시부터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도내 전체 논벼 5만2,424ha가량이 병충해에 시달리는 것으로 집계됐다”면서 “하지만, 농업재해로 인정받지 못하는 현행 제도 때문에 농민들이 시름을 앓고 있다”고 강한 목소리를 내며,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이날, 최영일 의원은 “전체 면적의 40%로 벼를 수확하더라도 등급을 제대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농민 입장에선 막대한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에 발 벗고 나섰다”고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이번 병충해는 벼를 말라서 죽는 ‘이삭도열병’이 3만5,286ha로 가장 심각했고, 세균벼알마름병 9,611ha와 개씨무늬병 7,527ha로, 수확기를 앞두고 병충해



가 확산한 것은 이삭이 패는 출수기인 8월 중순과 말 사이 퍼부은 가을장마 즉 늦장마가 원인으로 꼽힌다.

이, 최영일 의원은 “지난 2014년 전남지역 병충해가 농업재해로 인정받은 것을 선례로, 전북지역 역시 재해지역으로 선포돼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최 의원은 특히, “재해대책법을 개

정해 농업재해로 자연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면서 1인 시위에 나선 것을 설명했다.

이어 최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 강민철 재해보합정책 과장, 농림축산식품부 김중훈 기획조정실장, 행정안전부 최훈 기획조정실장 등을 만나 이번 전북지역 벼 병충해 피해에 대한 호소와 함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벼 병충해와 관련해 잠정 집계로 올해 생산량을 추산하면 예년 대비 생산량이 5~8% 정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도내 농가 대부분은 8월 출수기에 맞춰 세 차례 이상 방제했음에도 늦장마와 야간 저온현상에 급속히 번지는 병해충을 잡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순창지역은 총 재배면적 5,087ha 중 이삭도열병 1,780ha, 세균벼알마름병 610ha, 개씨무늬병 760ha 면적 대비 각각 35%, 12%, 15%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호상 기자

수협산지위판장 절반 저온·위생시설 전문

수협의 전국산지위판장 211개소 중 98개소(46.4%)가 냉동·냉장·저온·위생시설이 전혀 없고, 147개소(70%)는 새나 쥐 등을 차단하는 시설이 없어 갈매기·생쥐 등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19일 수협중앙회의 국정감사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국내 연근해 수산물의 약 80%를 위판·유통하는 수협의 산지위판장 중 절반이 냉동·냉장·저온·위생시설이 없어 수산물이 상온에 노출돼 신선도를 담보할 수 없고 산지위판장 70%는 새나 쥐 등에 무방비로 노출돼 위생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산지에서부터 위판장까지 단계별로 저온시스템을 도입하고, 개방형 재래식 위판장을 폐쇄형 청정위판장으로 전환하는 사업인, 저온위판장 전환 사업은 약 2% 청정위판장 건립사업은 약 1%로 저온·청정위판장 사업이 저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호상 기자



도내 보호수 체계적 관리 제도화

두세훈 도의원 대표 발의 조례안 도의회 본회의 통과

전북도의회 두세훈 의원(완주·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전라북도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9일 제 385회 임시회 제 4차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두 의원에 따르면, 보호수는 수령 100년 이상의 노목·검고·화귀목으로서, 고사나 전설이 담긴 수목이나 특별히 보호 또는 증식 가치가 있는 수종으로, 전북도에는 총 20종 645그루의 보호수가 지정돼 있다.

이처럼 보호수가 역사적, 문화적, 정신적 가치가 있는 유산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의 무관심으로 보호수 지정이나 유지·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또 한편에선 보호수 주변에 무분별한 시설공사로 인해 보호수가 훼손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 차원에서 보호수를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하기 위한 제도



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게 두 의원의 설명이다.

조례안에는 ▲보호수의 지정·지정 해제 및 이전 등에 관한 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호수 심의위원회를 두고, ▲보호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보호수 주변에 편의시설 및 콘크리트 구조물 설치 등 시설공사를 실시할 경우, 나무의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해당 시·군에 이를 안내하도록 했다.

또한 ▲보호수 또는 보호 시설물 등을 훼손한 사람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으며, ▲보호수의 보호·관리를 위해 연 1회 이상 정기점검 또는 필요에 따라 수시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두세훈 의원은 “보호수는 마을에서 수백년을 이어오며, 역사적인 사실들을 깨닫고 있는 자연 자원으로, 오랫동안 생명을 이어가도록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관리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보호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지방의회 완전한 독립 필요”

송지용 도의회 의장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후속 조치 통해 최선”

전북도의회 송지용 의장(완주)은 19일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들에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후속 조치를 통한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에 최선을 다하라고 요청했다.

송 의장은 이날 전주에서 열린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239차 시·도대표회의에서 격려사를 통해 “올해는 지방의회 개원 3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라며 “광역·기초의회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내년 1월 본격 시행되는 지방자치법이 지방의회의 역할을 재장착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역할과 권한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며 “대한민국시도의회협의회는 물론, 타 시도의회와 정보 공유 등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방의회의 완전한 독립을 위한 지방회법 제정 등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지방의회가 지방의 지속 가능



한 발전을 견인하고,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은 물론, 주민 중심의 새로운 지방분권시대를 선도하는 데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송지용 의장은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발전에 앞장선 공로로 기념패를 전달받았다.

/유호상 기자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